

문화 “노래하며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불자가수 라마(요술당나귀 리더)

1월 21일 인터뷰를 위해 조계사 인근으로 나온 불자 가수 라마는 붉은색 점프에 긴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었다. 도시화된 세상의 틀에서 벗어난듯 보이는 표정은 가볍고 자유로웠다. 캄보디아를 다녀왔다고 했다. 그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 날개달기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캄보디아 뽕노초등학교 봉사를 다녀온 것이다. 라마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교가와 찬불가도 만들어주는 봉사를 했다. 녹음장비를 직접 가지고 가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녹음도 했다.



불자 가수 라마는 노래 부르며 봉사하는 삶으로 항상 즐겁다. 사진=박재원 기자

캄보디아 국제구호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교가 '작곡' 봉사 소아암환우돕기 공연 매월 열어 하반기경 새 음반 발매 예정

200석 규모의 콘서트를 진행해왔고 구급 23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1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1200석이 꽉 차면서 상황을 이룬 것이다.

“1년 동안의 공연으로 모은 수익금과 기부금으로 7000만원을 기부했어요. 아이들에게 70개의 가발을 보냈죠. 좋은 일을 하고자 뜻을 모으니 공연제작을 도와주는 분들이 생겼죠. 저희는 공연에만 신경을 써요. 또 공연이 끝나면서 100만원을 개인 후원 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공감을 샀죠.”

그는 봉사를 한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의무감을 갖지는 않는다. “제 삶 안에서 보람된 일을 찾고자 시작한 일이지요. 봉사라는 생각보다 제가 지

금 잘할 수 있고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올해 라마는 음악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한다. 풍등,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등의 찬불가를 작곡한 바 있는 그는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음악으로 대중과 만나고자 한다. “따음속에는 이제 음악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도 늘 새로운 곡들을 만들고 부르며 녹음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새 음반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라마는 또 하나의 새해 계획을 덧붙인다.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 뜬금없이 왜 요리냐고 물으니 냉장고 비우기 캠페인을 해보고 싶단다. “캄보디아에서 느낀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과 재료들을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냉장고를 믿고 너무 많은 음식재료를 사고 다 먹지 못해 버리게 돼요. 냉장고 덕분에 너무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 냉장고가 너무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요리하며 비우기 이런 콘셉트로 캠페인도 펼치고 노래도 불러보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hs@ryunbul.com



소아암 어린이에게 특수가발을 전해주는 모발나눔 콘서트 장면.



캄보디아 봉사활동. 초등학교에 교가를 만들어 주고했다.

역력한 흰구름 뉘에게 줄 수 있으랴

세조와 나한도량의 인연

경기도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水鍾寺)는 조선 세조(世祖)에 의해 중창된 절이다.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조의 중창과 관련한 설화는 흥미롭다.

세조가 오대산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던 길에 양수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런데 두물머리의 야경을 즐기는데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세조가 신하들에게 살펴보라 했다. 다음날 신하들은 운길산에 올라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니 폐사가 있었다. 거기 바위벽에 18나한이 줄지어 앉아 있고, 바위 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종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세조는 감동하여 절을 중창하게 하고 이름을 수종사라 하였고, 수종사는 나한기도 도량으로 이름이 나게 되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合水)되는 양수리가 한 눈에 내려다보는 시원한 조망은 언제나 일품이다. 양수리가 보이는 쪽으로 통유리를 달아 흰구름 푸민 다실(茶室) 삼정헌(三鼎軒)도 한 번은 사람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다산 정약용, 초의 선사, 추사 김정희가 함께 수종사에 모여 차 맛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차를 마신다며 그 향기는 더 은은할 것이다. 삼정헌은 '시(詩) 선(禪) 차(茶)가 곧 하나로 통하는 다실'이라는 뜻으로 봉선사 조실 월운(月雲)스님이 명명했다고 한다.

“동방제일의 사찰 경치”

최근 문화재청이 운길산 수종사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입법예고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종사 일원의 명승 지정, 이미 500년 전에 살았던 선비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수종사에 올라 “동방 사찰 가운데 제일의 경치”라 격찬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의 명승 지정은 그렇게 떠들 일도 아닐 성 싶다.

수종사를 중창한 세조가 매우 아끼던 신하였던 서거정. 그가 45년간의 공직생활 가운데 대제학을 지낸 시간이 23년이다. 무엇보다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경국대전> 등 조선의 대표적 국가제도 저술들의 편찬을 주도했고 <동인시화> <역대연표> 등의 개인 저술과 시문집 <사가집>을 남겼다. 그가 쓴 시문(詩文)은 무려 1만여 편에 이른다는데 전하는 것이 6000여 편이다.

그런 서거정이 수종사의 풍경을 ‘동방제일’로 격찬했듯, 오늘날의 풍경도 ‘명승’ 이상의 승경이다.

추래운물이처저(秋來雲物易樓樓) 숙우련조수박(宿雨連湖水拍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⑤ 서거정과 수종사 ①



운길산 수종사에서 조망되는 양수리의 풍경

하계연진무지피(下界煙塵無地避) 상방루각여천계(上方樓閣與天齊) 백운력력수강중(白雲歷歷誰堪攀) 황엽비비로옥미(黃葉飛飛路欲迷) 아의왕참동원화(我擬往參東院話) 막교명월괴금제(莫教明月怪禽啼)

가을이라 오만 풍경이 처량해지기 쉬운데 밤새도록 비까지 와서 물이 못 독을 쳐 대네.

속세의 연기 먼지는 피할 길이 없건만 상방의 누각은 하늘과 가지런하여라. 백운은 역력한데 뉘에게 줄 수 있으랴 단풍잎은 훑날려가는 길은 헛갈리겠지. 내가 가서 동원의 담화에 참여하려 하노니 밝은 달밤에 괴이한 새가 울지 못하게 하쇼.

-서거정 '수종사' <사가집> 보유편 3권

당대 최고의 문장가요 시인으로 꼽히는 서거정이 스스로 ‘동방제일’의 경치라 격찬한 수종사에서 시 몇 수를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일. 그렇다고 많은 시를 남긴 것은 아니다. 그의 문집 <사가집>에는 수종사와 관련된 시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서거정의 문집에는 사찰의 풍경을 읊거나 승려들과 담화와 안부를 주고받은 시들이 상당히 많이 전한다. 이른바 사찰이라면 그의 시 한 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성종실록>에 1448년(성종 19) 12월 24일자로 기록된 서거정 졸기(卒記)에는 “서거정은 온량간정(溫良簡正) 온화하고 무뎠으며 간소하고 바빠하고 모든 글을 널리 보았고 겸하여 풍수(風水)와 성명(星命)의 학설에도 능통하였으며 석씨(釋氏)의 글을 좋아 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다. 아마 관학을 주도한 선비로서의 체면을 높이기 위해 불서(佛書)를 읽지 않았음을 짐작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불교에 매우 해박한 선비였고 스님들과의 교류도 막역했다.

앞에 보인 시에서 서거정은 수종사의 풍경을 읊으면서도 불교의 지향(指向)을 높은 안목에서 공감하고 있다. 수련에서 가을날 비 온 뒤의 수종사 풍경을 묘사한 서거정은 함원에서 ‘먼지’를 피할 길 없는 속세의 삶과 ‘하늘과 가지런한 상방’을 대비시켜 풍경 이상의 가치, 초월적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산사를 묘사하고 있다. 상방은 주지승이 거주하는 내실이란 의미지만 절을 뜻한다.

이어지는 대목 또한 높은 도력을 상징하는 ‘흰 구름’과 속진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단풍’을 대비시켜 불가의 이상향을 말하고 있다. ‘흰 구름’은 깨달음 내지는 깨달은 자의 자유로운 삶을 상징한다. 중국 남제(南齊)에 도홍경(陶弘景)이라는 은사(隱士)가 있었다. 그의 시 가운데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고갯마루에 흰 구름이 많다네. 그저 혼자 즐길 수는 있지만 그대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네’ (山中何所有 嶺上多白雲 只可自怡悅 不堪持贈君)라는 구절이 있다. 서거정은 이 시에서 ‘흰구름’을 차용해 수종사 혹은 불가의 초월적인 경지를 말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미려에서 서거정은 스스로 ‘동원(東院)의 담화’에 참여하려 한다고 심경을 밝힌다. 동원은 당나라의 고승 조주(趙州) 선사가 거처한 관음원의 다른 이름이다. ‘꼭대기’ 화두로 유명한 조주선사는 중국 선종의 큰 스승이다. 그래서 관음원의 별칭인 동원이란 말은 ‘고승의 처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그러니까 서거정은 수종사의 풍경 속에서 스님들과 법담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며, 달밤에 새가 울어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이다. 다소곳하면서도 날카로운 기상을 보이는 시라 하겠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내산 (청도 불광사 사찰 내 재배)

‘적하수도 된장’ 판매
‘적하수도 고추장’ 판매

■ 적하수도, 적하수도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도 된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도 된장, 하수도 고추장은 청도 서릉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도로 만듭니다.

적하수도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도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모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 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모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도 남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3,64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 (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쓴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현재 32종 64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